한양대학교 2024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

인문 계열

모 의 논 술

수험번호 (　　) 성명 (　　)

[문제] (가), (나)에서 말한 '새로운 연대 개념'과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살려 바람직한 공동체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다)를 활용하여 ㉡의 입장에서 ㉠에 대해 서술하시오.(1200자, 100점)

(가) 사람들은 사회 응집을 유지하기 위해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때 각자의 개성은 은폐되거나 사라지고, 우리는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단순한 집합적 생명체가 된다. 그렇게 뭉친 사회적 구성원들은 마치 무기체의 분자들처럼 개성을 유보할 때만 공동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연대를 ㉠기계적 연대라고 부른다. 이와 반대로 분업의 진전과 함께 나타나는 연대가 있다. 기계적 연대는 개인들이 서로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지만, 분업에 의한 유기적 연대는 개인들이 서로 다르면서도 호혜적으로 공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계적 연대는 개인이 집단에 일방적으로 흡수될 때에만 가능하지만, 유기적 연대는 각 개인이 고유한 행동 영역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사회의 영역이 확장되고 그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호혜적 공존을 바탕으로 한 연대가 절실해진다. 이러한 새로운 연대를 통해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응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나) 기원전 877년에 즉위한 중국 주나라의 여왕(厲王)은 이권에 강한 집착과 탐욕을 보였다. 주위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성향을 보였다. 백성들은 왕을 비방하기 시작했고, 이에 왕은 사람들을 시켜 자신을 비방하는 백성들을 감시하게 하였다. 심지어 누군가 왕을 비방했다 하여 감시자들이 그를 지목하면 잡아다 죽이기도 했다. 백성의 비방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여왕은 더 강력하게 언론을 통제했는데, 백성들은 이제 감히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길에서 만나면 눈짓으로 마음을 나눌 수밖에 없었다. 백성들의 비방을 잠재운 여왕은 기분이 좋아 충직한 신하인 소공에게 자신이 백성의 거친 입을 막았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이에 소공은 다음과 같은 말을 간곡하게 건네면서 진정한 소통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전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말을 못 하게 억지로 막은 것에 불과합니다. 백성의 입을 막기란 물을 막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물이 막혔다가 터지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피해가 큰 것처럼 백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물을 다스리는 자는 물길을 터서 흐르게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그들을 이끌어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자연의 원리에 빗대 백성들과 소통하는 자세를 강조한 것이다.

(다)

저 가볍게 나는 하루살이에게도
삶의 무게는 있어
마른 쑥풀 향기 속으로
툭 튀어오르는 메뚜기에게도
삶의 속도는 있어
코스모스 한 송이가 허리를 휘이청 하며
온몸으로 그 무게와 속도를 받아낸다.
어느 해 가을인들 온통
들리는 것 천지 아니었으랴
바람에 불려가는 저 잎새 끝에도 온기는 남아 있어
생명의 물기 한 점 흐르고 있어
나는 낡은 담벼락이 되어 그 눈물을 받아내고 있다.
– 나희덕, <흔들리는 것들>

뒷면에 계속 ☞